

홀로그램 헤리티지 육성 방안 모색

익산시, 융합 발전 포럼 개최... 산·학·연·관 머리 맞대

익산시가 산·학·연과 합심으로 홀로그램 헤리티지 기술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 및 산업 육성 방안 모색에 나섰다.

시는 7일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홀로그램 헤리티지 융합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전라북도과 익산시가 지난해 선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공모 과제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및 가치 서비스 실증사업'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는 홀로그램 기술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학·연·관의 협력기반 아래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의 최신



2023 홀로그램 헤리티지 융합 발전 포럼

지식과 경험 교류를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포럼은 한국 고고환경연구소 안형기 실장(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부 교수)의 '홀로그램 헤리티지의 정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기조 강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사업 주관기업인 (주)K데이터시스템즈 최창취 부사장의 헤리티지 사업 소개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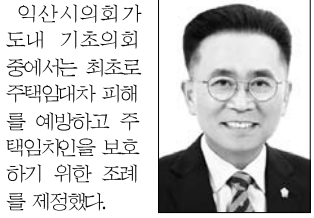
욱 교수의 '국가 유산의 진정성 표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 적용 방안', (주)메타시 송혁규 박사의 '홀로그램과 HR 디바이스'의 발표로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홀로그램 헤리티지 제품 활용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가상 복원 및 전시,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로 두 번째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홀로그램 헤리티지 연구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2025년에 최종적으로 선보일 연구개발 결과물의 완성도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임차인 보호 지원'

박종대 익산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익산시의회가 도내 기초의회 중에서는 최초로 주택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7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중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이 발의한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

박 의원은 최근 익산시에서도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정부 지원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익산시민에게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 "특히,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이 보증금 사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임대차 피해를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법률상담, 건전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교육,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시민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LED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시범운영

군산시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고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수송동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란 횡단 보도 신호대기선에 LED 램프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바닥을 보고 있어도 보행신호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교통안전시설 보조장치다.

일명 '스마트' (스마트폰과 줌비의 합성어)쪽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에 몰두한 채 바닥을 보며 걷는 사람들의 전방주시 미흡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고, 야간이나 우천 시에 횡단보도 위치를 눈에 띄게 하여 안전한 보행 확보와 운전자의 시인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탐마루 농산물 10일까지 서울 시장 공략

익산시가 지역 명품 농산물인 '탐마루'의 서울 시장 공략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 중이다.

시는 7~10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서울특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특관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탐마루 농산물을 서울 소비자들에게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 수도권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다.

시는 이번 특관전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 고구마, 방울토마토, 배, 쌀 등 탐마루 인증으로 철저히 관리되는 5개 품목 3.8톤의 고품질 탐마루 농산물을 선보였다.

특히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관측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시는 탐마루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관측을 강화한다.

우선 탐마루 브랜드의 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용산역 내 광고를 진행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농공단지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본격 시행

입주기업 에너지 효율화 통해 산단 경쟁력 향상 기대

군산시가 에너지 자립화와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위해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도입 모델사업'에 선정된 군산시는 2024년까지 24억5,000만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서수농공단지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정비로 통해 제조 경쟁력을 강

화해 나갈 계획이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에너지 진단을 통하여 절감 방안을 도출하고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분산 전원 구축 및 에너지 절감 전력제어장치를 통해 총 7%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서수 농공단지에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지로 식료품 분야에 전기 및 가스(LNG)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어 시는 이번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 305tco₂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632.7tco₂ 등 에너지 사용을 절감, 서수농공단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서수농공단지는 군산시 농공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산업단지로서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와 친환경 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효율적 빈집 활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한동연 익산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어양동)은 7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익산시 빈집 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현행 조례는 빈집 정비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빈집의 정비 방

법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익산시에는 도심지역 926호, 농촌지역 1,054호로 총 1,980호의 빈집이 있다.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이중 1,414호의 빈집이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빈집 증가는 지역소멸의 징후인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며 "효율적인 빈집의 활용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문화영향평가 공모전 우수사례 '대상' 수상

익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의 지역별 특화전략으로 지역에 문화적 가치 확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6일 열린 2023년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에서 문화영향평가 공모전 우수사례 지자체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진단·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영향평가 도입 10주년을 계기로 처음 실시됐으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체육관광



부에서 실시한 총 247건의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선정됐다.

시는 2020년 '익산문화도시조성계획'과 '금마도시재생계획' 2개 정책에 대한 문화 영향 평가에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6개월간의 평가 기간 동안 시는 지역주민 문화활동가, 문화영향평가 연구진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문화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갱신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지역별 특화전략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 주민 5인 이상이 마을의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문화마을' 2개 사업을 기획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 전역에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적극적인 환류 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문화가 단순한 여가나 오락을 위한 부수적인 영역이 아니라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 할 수 있는 문화도시 익산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익산=김판곤 기자

군산 서수면, '착한기부명예의 전당' 운영

군산시 서수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일 센터 1층 민원실에 서수면 착한기부 명예의 전당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수면 착한기부 명예의 전당'은 서수면 착한기부 대표자와 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금 및 물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지역 사회 나눔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착한기부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기부자는 29명으로 올해 기탁된 기

부금(품)은 서수면 건강음료 배달사업, 밑반찬 및 겨울이불 지원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224명을 지원하는데 사용됐다.

이유정 서수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선행을 베풀어 준 기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착한기부 명예의 전당을 통해 아름다운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주민들 스스로 나눔을 더욱 실천하는 행복한 서수면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